

배우 이민호 “꽃보다남자 때처럼 제 연기 의심했어요”

애플TV+ 드라마 ‘파친코’ 한수 역 맡아
“진정성 보이고픈 욕망 치열하게 연기”

“기존의 저를 부수고 싶었어요.” 배우 이민호(35)는 애플TV+ 새 드라마 시리즈 ‘파친코’에 출연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정제돼 있고, 멋있고, 판타지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야생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원초적인 면을 표현해보고 싶었다”는 게 그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라고 했다. 말하자면 이민호의 전작인 ‘더 킹: 영원의 군주’에서 백마를 타고 광화문에 나타났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얘기다. 이민호를 18일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그가 한류를 대표하는 배우라는 데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K-콘텐츠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그 역시 ‘파친코’라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몸을 던졌다. 애플TV+가 국내에선 아직 입지가 약하지만 흥행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호는 “작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흥행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런 부담에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 드라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민호는 이 작품을 위해 오디션을 봤다. 2006년에 데뷔해 이미 17년차 배우이고, ‘꽃보다 남자’로 스타 반열에 오른 게 벌써 13년 전이다. 아무리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라고 해도 이민호 정도 되는 슈퍼스타가 오

수 있고 상대 에너지를 맞받아칠 준비가 된 캐릭터”라는 것이다. 이민호가 앞선 작품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완벽하게 다듬어진 외모를 가진 미남이라면, ‘파친코’에서 한수는 시대의 비극을 몸으로 겪는 인물에게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얼굴로 예를 들면, 사프하고 예쁜 것보다는 투박한 느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국 드라마 준비할 때처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각종 관리를 받는 것은 안 했죠.” 이민호는 “한수는 본인의 욕망에 충실한 기회주의자”라며 “그러면서도 선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한수 내면의 고통과 괴로움이 내게도 느껴지는 듯했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기점으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K-콘텐츠가 주목받고 한국 배우들이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류 최전선에 선 배우로 꼽히는 이민호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정재·이병헌·정우성·강동원 등 선배 배우와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제 선배님도 그렇고 많은 선배들이 그러셨어요. 더 위에 선배들이 있어서 지금의 선배들이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열심히 해 볼 생각이예요.”



빅뱅, 다음달 5일 컴백 확정...“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날”

싱글 ‘꽃 길’ 이후 약 4년 만

그룹 ‘빅뱅’이 컴백일을 확정했다. 2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뱅은 오는 4월5일 신곡을 내놓는다. 빅뱅의 신곡은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싱글 ‘꽃 길’ 이후 약 4년 만이다. 또 승리 탈퇴 이후 4인조로 선보이는 첫 신곡이기도 하다. 이날 빅뱅의 깜짝 티저에 세계 각국 팬들은 즉각 환호했다. 릴리즈 포스터가 공개된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BIGBANG’은 트위터 월드 와이드 트ренд 1위로 떠올랐다. 또한 팬들은 빅뱅의 신곡 발표일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올해 4월 5

일은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淸明)에 해당한다. YG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썩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부디 또 만나요 꽃이 피면’이라고 노래했던 빅뱅의 약속과 봄의 기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6년 데뷔해 올해 17년차를 맞은 빅뱅은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뱅뱅뱅(BANG BANG BANG)’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2세대 K팝 그룹 대표로 통한다. 멤버들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프로듀싱돌’의 문을 열었다는 평을 듣는다. 2017년



탑을 시작으로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차례대로 군에 입대하면서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보였다.

홍진영, 1년5개월 만에 자숙 끝 활동 재개...“속죄하는 심정”



다음달 6일 신곡 발표 가수 홍진영이 1년5개월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21일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홍진영은 오는 4월6일 신곡 발표를 목표로 현재 녹음 작업을 마무리했다. 뮤직비디오 촬영도 진행 중이다. 앞서 홍진영은 2020년 11월 활동을 중단했다. 조선대 무역학과 재학 시절 제출한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가 당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해 12월 조선대 측이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 홍진영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후 활동을 중단해왔다.

IMH은 이번 복귀와 관련 “그동안 변치 않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자신의 과오와 불찰에 대해 속죄를 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에 넘치는 인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중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홍진영은 이번 복귀와 함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판타스틱 패밀리’ 정규편성...MC 이수근 유지

5월 중 방송 예정

SBS TV ‘판타스틱 패밀리’가 정규 편성된다. 21일 SBS에 따르면, 설 특집 파일럿 ‘DNA 싱어-판타스틱 패밀리’는 다음 달 초 녹화를 목표로 제작에 돌입한다. 코미디언 이수근이 그대로 진행한다. 양세찬, 장도연, 가수 양희은 등

이 편정단을 지킨다. 판타스틱 패밀리는 얼굴과 목소리만으로 어떤 스타 가족인지 추리하는 쇼다. 설 특집에서 코미디언 최성민·최성환 형제가 우승했다. 트로트가수 송가인과 조카 조은서, 진성·진성문 형제 듀엣 무대도 화제를 모았다. 정규 방송에 선 연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5월 중 방송.



배우 차예련, ‘펜스토랑’ 첫 출격...25일 방송

‘차장금’이라는 수식어 얻어

‘펜스토랑’에 배우 차예련이 출격한다. KBS 2TV ‘신상출시 펜스토랑’(이하 ‘펜스토랑’)은 21일 또 한 명의 ‘짙 실력자’ NEW 편제 프 18년 차 배우 차예련의 출격 소식을 전했다. 차예련은 지난 2017년 배우 주상욱과 결혼했다. 슬하에 다섯 살 딸 인아를 두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차예련은 첫 출격부터 놀라운 한식 고수 면모를 보여주며 ‘차장금’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는 전언이다. 가족들을 위해 임금님 수라상 뺨치는 밥상을 차려내다가 하면, 궁중요리까지 섭렵해 펜스토랑 식구들 모두 “진짜 고수다”라고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제작진은 “‘펜스토랑’ 식구들까지 ‘왜 이제야 나왔냐’고 아쉬워할 정도로 첫 등장부터 몸이 밴 요리 내공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남편 주상욱과의 평범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일상도 최초로 공개된다”고 전했다. 한편 차예련이 첫 등장하는 ‘펜스토랑’은 오



는 25일 오후 8시30분에 방송된다.

이효리, 서울 왔다... ‘서울 체크인’



다음달 8일 첫 공개

‘서울체크인’은 서울에서 스케줄을 마친 이효리가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갈까라는 호기심에 출발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앞서 서울의 초인종을 누르는 이효리의 모습이 담긴 ‘땡땡 포스터’에 이어 본격적인 서울 라이프의 시작을 알린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효리 서울 왔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효리가 제주에서 서울로 체크인 하는 모습이 담겼다. 화려한 핏핑크 미니 원피스로 디바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서울 라이프를 예고했다. 특히 편안한 옷차림으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전 포스터와는 상반된 분위기가 흥미를 더한다. ‘서울체크인’은 오는 4월8일 첫 공개된다.

티빙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서울체크인’이 21일 서울의 문을 활짝 여는 화려한 이효리의 모습으로 시작을 알렸다.